

‘5사(事) 7계(計)’로 본 걸프전쟁의 평가 및 분석

宋 寅 榮

(3사관학교 전사학 교수)

1. 서 론
2. 걸프전쟁의 배경 및 결과
3. ‘5사(事) 7계(計)’의 의미
4. 걸프전쟁의 승리 요인 분석
5. 결 론

1. 서 론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쟁(페르시아만 전쟁, the Persian Gulf War의 War를 지칭)은 미국과 유엔이 개입하고 이에 다수 국가들이 동참함으로써 1991년 2월 28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료되었다. 이들 나라에는 그동안 미국과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던 러시아를 포함 이집트, 시리아 등 이라크와 종교적 결속을 이루고 있는 다수

의 이슬람국가들까지 합류하였다.

러시아의 참여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舊)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의지대로 군사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유엔안보리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터였기 때문에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연합세력, 이른바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을 편성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自明)해진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단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 및 절차만 남은 셈이 된다. 걸프전쟁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 전쟁으로 기록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항공력과 첨단 무기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다국적군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다국적군은 항공력(공군과 해군)을 이용해 이라크의 방공망 및 전락시설을 파괴하고 공군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스텔스(Stealth)기·아파치(Apache) 헬기·크루즈(Cruise)미사일 같은 정밀유도무기, 그리고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체계 등 첨단무기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걸프전쟁이 '무기체계가 전술교리를 초월한 최초의 전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무기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걸프전쟁에서는 또한 막대한 전쟁 비용이 투입되었고, 그 비용을 여러 국가가 분담하는 선례를 남겼다. 미국은 걸프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대부분의 전쟁비용을 거둬들여 독립 이후 최초로 외국의 기부금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했고, 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일본과 독일이 다음으로 많은 전비를 지원했다. 한국도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지역분쟁의 해결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비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걸프전쟁은 그 수행방식 및 결과가 과거의 전쟁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자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따라 그 진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걸프전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걸프전쟁이 ‘냉전을 종식시킨 전쟁’ ‘신 십자군 전쟁’ ‘돈의 전쟁’ ‘무기체계가 전술교리를 초월한 최초의 전쟁’ ‘첨단 과학전쟁 또는 High-Tech전쟁’ ‘정보전쟁’ ‘C³I전쟁’ ‘전자전’ ‘항공력 위주의 전쟁’ ‘공지전투’ ‘전자 오락 게임’ 등으로 지칭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걸프전쟁이 기존의 전쟁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며,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선보이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걸프전쟁을 ‘칸네(Cannae)전투 또는 엘 알라마인(El Alamein)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사실도 그렇고, 미국이 걸프전쟁 당시 지상전에서는 『손자병법(孫子兵法)』(또는 손자로 약칭)의 비책(秘策)들이 가장 많이 원용될 것이라 예견했던 것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호치민(胡志明)이 구사한 이 손자병법전략 때문에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1982년에 출간된 『야전 교범 100-5 작전』에 손자병법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지휘 참모대학에서는 이 책을 학생장교들에게 연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손자병법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전 춘추시대(기원전 771~453년) 말 오(吳)나라의 군사(軍師)이자 장군이었던 손무(孫武)가 지은 책으로 동양 최고의 군사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이 그 진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 병법서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변화 등에도 구애받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전쟁원리 및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은 국가적 최대과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산이 있을 때 해야하고 따라서 사전에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평가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 요소로서 '5사(五事)'와 '7계(七計)'를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5사 7계'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걸프전쟁은 다국적군이 시종일관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도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되었다. 환언하면 전쟁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이라크군의 참패가 예견된 전쟁이 바로 걸프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왜 미국과 유엔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결심하였으며, 다국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가? 또는 사담 후세인 손자병법의 '5사 7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5사 7계'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만 있었다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 또는 '이미 패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제적 정세나 전쟁의 본질 및 원칙에서도 그의 결심과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미 승패가 예상된 걸프전쟁의 결과를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5사 7계'에 대입해 봄으로써 걸프전쟁의 승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손자병법의 유용성 및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걸프전쟁의 배경 및 결과, 그리고 '5사 7계'의 의미를 알아 본 다음 이를 전쟁의 준비 및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승패 요인들에 대입, 그 연관성과 교훈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2. 걸프전쟁의 배경 및 결과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미국의 개입

걸프전쟁은 1990년 8월 2일 01시 최정예부대인 공화국수비대의 3개 사단을 선봉으로 14만 명의 병력과 전차 1,800여 대, 헬기 300대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군이 인접국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함으로써 비롯되었다.¹⁾ 이라크군의 전격적인 침략에 대해 총 병력 2만여 명, 전차 300여 대, 항공기 36대(작전용)밖에 갖지 못한 쿠웨이트는 그런대로 저항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수도인 쿠웨이트시를 점령한 이라크군은 국내에 산재해 있는 유전을 접수하는 등 침공당일 해질 무렵까지 대부분의 국토를 장악하였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즉각 ‘자유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는 “쿠웨이트 국내에서 사바(Al-Sabah) 정권체제를 타도하려는 젊은 혁명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적 점령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사담 후세인이 내세운 쿠웨이트 침공 이유는 “쿠웨이트가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영국으로부터 각각 1932년과 1961년에 분리 독립한 것은 모순이고, 따라서 이라크가 독립했을 때 쿠웨이트는 당연히 이라크의 일부가 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영토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

1)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의 전투력의 규모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런스 프리드만과 에프레이م 카쉬가 공동 저술한 『걸프전쟁』을 참고로 하였다. Lawrence Freedman and Efraim Karsh, *The Gulf Conflic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67. 한편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1992, p. 44에서는 8월 6일까지 최소 11개 사단이 쿠웨이트내에 있거나 혹은 진입 중에 있었으며, 이것은 2천대 이상의 전차로 지원 받는 20만 명 이상의 병력에 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고 사담 후세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관 및 개인적인 야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

이라크군은 전력면에서 쿠웨이트군을 충분히 압도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했기 때문에 쿠웨이트 점령이라는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지만 쿠웨이트를 침략할 만한 대의명분과 전쟁개시의 정당성은 갖지 못했다.

사담 후세인이 제시한 명분 - 쿠웨이트내의 혁명가들이 수립한 '자유임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 진입했다 - 은 1907년 제3차 헤이그조약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된다. 이 조약에 의하면 전쟁을 개시하기 앞서 전쟁 당사국간에 개전 선언을 하거나 조건부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체제하에서 전쟁은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제 국가들은 자위(自衛)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의 공권력의 대행자로서만 무력의 행사가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은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유발하였다. 특히 이라크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감지하고서도 그것을 단순한 위협용이라고 판단했던 미국은 그 충격이 더욱 컸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지 부시(G. Bush) 대통령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바로 그날 행정부 명령 제12722호 발표를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하여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시체제로 돌입했고,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침공에 대비, 인도양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을 즉각 걸프지역으로 이동시켰다.³⁾

2) Lawrence Freedman and Efraim Karsh, 앞의 책, pp. 3~63.

3)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 70.

또한 미국은 그날 유엔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즉각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안보리 결의 660호) 채택을 관철시켰다.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참여한 이 결의에서 이라크와 우호관계가 깊은 예멘 단 한 나라만이 기권했을 뿐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보조를 맞추었다. 베이커(J. Baker) 미 국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E. Shevardnadze) 구 소련 외상은 긴급회담을 갖고 “이라크의 쿠웨이트에서의 즉각 철수 및 전 세계적으로 대 이라크 무기금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 수십 년 동안 팽팽히 맞섰던 적대국의 관계에서 ‘반후세인 연대’에 동참하는 동맹국의 일원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적 분쟁문제에 관하여 유엔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조를 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아랍권에서는 이라크 지지파와 반대파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으나, 8월 1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연맹회의에서 12개국의 찬성으로 “이라크군의 즉각 철수와 아랍합동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병 및 미국의 신속배치군의 허용” 등을 결의하였다.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정세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되었음을 공표하고, 8월 10일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이번의 군사행동은 서방측의 기독교 세계와, 거기에 오염된 아랍 배신자에 대한 지하드(성전)이며, 이라크는 이 전쟁을 감행하라고 선택받은 국가이다”라고 주장했다.

8월 12일에는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이라크군의 철수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의 철회,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의 중지 등의 3개항의 요구조건을

4)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리비아와 PLO만 강력히 반대했고, 이라크와 친밀한 알제리와 예멘은 기권, 나머지 국가들은 유보 또는 불참하였다.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연계론’(Arab Solution)으로 이라크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쿠웨이트 침공을 팔레스티나 문제와 관련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이 내세운 어떠한 명분도 “침략자를 응징하자”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상쇄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이미 유엔과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강국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군사력을 전개하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걸프전쟁 개입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하에 8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예비군 소집령을 발표하였고, 8월 25일에는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화물과 행선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⁵⁾ 이에 따라 페르시아 만과 홍해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및 다국적군 함대는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서 해상봉쇄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후세인은 8월 30일,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침공할 경우 이스라엘에 미사일로 공격하여 보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천명한 연계론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으나 이미 대세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력행사 용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국 11월 29일 유엔안보리는 만약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은 이전의 결의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결의 678호를 찬성 12, 반대 2,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⁶⁾ 이것은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이며, 국제사

5) Harry G. Summers, Jr. 저/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서울: 자작아카데미, 1992), p. 29.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개시된 1991년 1월 18일 ABC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가 전쟁을 지지한 반면에 71%가 반전운동가들을 비난했다. Joseph P. Englehardt,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A Chronology and Troop List*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 S. Army War College, 1991), p. 31. 유엔 결의안 제 665호.

6) 이 결의안에 쿠바와 예멘이 반대하고 중국은 기권했다.

회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 또한 비록 정식 선전포고를 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1991년 1월 7일 드디어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고, 격렬한 토론 끝에 1월 12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⁷⁾

한편 이라크는 12월 5일에, 쿠웨이트의 전략 요충지(2개 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철수를 시사했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했다. 1월 9일 미국이 이미 제의한 이라크와의 최후 협상은 예상했던 대로 결렬되고 이후 계속된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유엔이 규정한 철수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및 무력 사용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 등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명분과 유엔결의안을 기초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국적군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그리고 회교권 안의 이집트·시리아 등 다수의 아랍 국가 등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포함되었다.⁸⁾

이제 미국과 다국적군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 이상 무력을 사용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시킬 수 있는 명분과 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것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 1991년 1월 17일 새벽에 실시된 이른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작전’이다.

7) Harry G. Summers, Jr. 저/권재상·김종민 역, 앞의 책, p. 32.

8)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에는 38개국이 미국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Khaled Bin Sultan 저/이진영 외 3인 공역, 『사막의 전사』(서울:민예원, 1997), p. 428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한 37개국이 다국적군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걸프전쟁의 결과

걸프전쟁은 3국면, 즉 다국적군의 전개(1990년 8월 5일~1991년 1월 17일), 다국적군의 공중폭격(1991년 1월 17일~2월 24일),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지상전투(2월 24일~28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전쟁은 다국적군의 공중폭격이 실시된 39일만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지상전이 전개되었지만 이미 결판이 난 전쟁이 약간(4일) 더 시간을 끄는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인들은 걸프전쟁을 “베트남전쟁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투가 장기화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리라 예측했다. 당시 양측의 전력을 보면 이러한 예상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상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미국은 54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과 그 밖의 연합군 20만 5천 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장비와 화력을 투입했고, 이라크군은 68개 사단과 4,280대의 전차, 2,870대의 장갑차, 3,11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수궁이 갈만한 일이다.⁹⁾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다국적군은 최단기 결전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 하였으면서도 그 희생은 경미했다. 공중작전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1,013시간) 계속되었으나 다국적군기의 손실은 아주 경미하였다. 이들은 전쟁 기간 중 109,876회를 출격했는데 39대가 상실되었고, 미군기의 손실은 28대에 불과하였다. 이는 1,000회(소티)당 0.35대를 잃었다는 계산이 되며, 손실률 0.0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전쟁에 비교해 보면 베트남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1966년의 ‘롤링 썬더 작전’의 손실률

9) 전투력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 체니 국방장관은 150만 명의 병력, 5천대의 전차, 1천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전쟁으로 단련된’ 군대로 평가하였다. 어쨌든 이 전쟁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수천 대의 탱크와 항공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규모가 큰 전쟁이었음에는 틀림없다.

0.35%의 1/10 수준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¹⁰⁾

특히 다국적군은 병력 사망 240명(미군 148명), 부상 776명(미군 458명), 전차 15대, 야포 20문, 항공기 50대 등 극히 경미한 손실을 입었다. 미국의 경우 2,000대 가량의 M-1 에이브럼즈 전차를 투입했으나, 그중 전투로 파손된 것은 8대뿐인데, 완전히 파괴된 것은 4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4대는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파손된 전차도 정면에서 사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면에서 사격을 받았거나 지뢰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에 사망한 전차병은 한 명도 없었다.¹¹⁾

이와는 달리 이라크군은 43개 사단 가운데 5~7개 사단 외에는 대부분 섬멸되거나 무력화되었으며, 약 8만6천여 명의 포로를 포함한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았다.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던 전차 4,280대 중 3,800여 대가 파괴되거나 노획 당했고, 600대의 전폭기 중 138대가 파괴되었으며, 140대는 제대로 출격도 못한 채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이란으로 대피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기타 야포·장갑차·함정 등 전투력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종전 후 이라크군의 전투력은 43개 전투사단 중 5~7개 사단만이 공격작전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차 1,500대, 야포 1,360문, 항공기 150대, 함정 1~2척 정도만 남게 되었다.¹²⁾ 이런 의미에서 걸프전쟁은 전사상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 또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전쟁으로 기록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10) 일반적으로, 공중작전에서 손실률이 1%정도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1) 전투력 손실 현황은 추정치이며 자료마다 일정치 않다. 특히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책 부록 p. 1에는 미군의 전사자수를 육군 175명, 해군 56명, 공군 35명, 해병대 67명 등 총 333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12) 이라크군의 전투력 손실 현황은 추정치이며, 여기서 인용된 자료는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p. 597~598 및 L. Freedman and E. Karsh, 앞의 책, p. 409 참조.

3. '5사(事) 7계(計)'의 의미

손자병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백성의 사활이 걸려 있고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므로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고 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이는 전쟁을 국가의 가장 큰 일로 보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도 안 됨을 강조한 것이다. 손자병법 12편 중 제1편 첫머리에 이 말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소득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말며,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非利不動, 非得不用, 非危不戰)”라고 한 것이며, “군주가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가 확김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익에 맞을 때하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主不可以怒而興師, 將不可以愠而致戰, 合於利而動, 不合於利而止). … 그러므로 현명한 통치자는 전쟁을 일으킬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亡國不可而復存 死者不可而復生 故曰, 明主慎之, 良將警之)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장수의 일시적 감정에 의하여 전쟁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며, 냉철히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그것도 국가 이익에 부응할 때만 해야한다는 것이 손자의 전쟁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승산이 있을 때 비로소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평가 요소가 이른바 '5사(五事)'와 '7계(七計)'¹³⁾이다.

13) 손자병법 원문에는 '7계'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교기준으로 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적으로 '7계'로 통용되고 있다.

‘5사’는 자기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체 평가하는 기준으로 첫째는 도(道) 즉 바른 정치, 둘째는 천(天) 즉 하늘의 변화, 셋째는 지(地) 즉 땅의 형상, 넷째는 장(將) 즉 장수의 자질, 다섯째는 법(法) 즉 법제를 말한다. 여기서 ‘도’란 “국민들이 윗사람(군주 또는 통치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통치자와 생사를 함께 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천’은 “음양(陰陽), 더위와 추위, 계절의 변화 등”을 말하며, ‘지’는 “땅의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한 정도, 넓고 좁음, 위험함과 안전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은 “지혜, 신의, 인애, 용감성, 엄격함 등 장수의 자질”을 말하며, ‘법’은 “토지제도 및 동원체제, 행정 및 군사제도, 군수품과 재정 등 법과 제도”를 의미한다.

현대적 개념으로 ‘도’는 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의 명분에 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천’은 기후·기상·시간적 조건에 해당하고, ‘지’는 지형의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광활하고 협소함, 지형의 용기와 함몰, 경사 등 지형조건을 뜻한다. 그리고 ‘장’은 장수의 5덕(德) 즉 지혜(智)·신망(信)·인애(仁)·용기(勇)·위엄(嚴)을 말하고, ‘법’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 지휘체계, 명령계통 및 규율 그리고 군수지원체제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7계’는 앞에서 제시한 ‘5사’를 기준으로, 첫째, 어느 편 군주가 정치를 잘 하여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가?(主孰有道). 둘째,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가?(將孰有能). 셋째, 어느 편이 천시와 지리의 유리함을 얻었는가?(天地孰得). 넷째, 어느 편이 법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法令孰行). 다섯째, 어느 편 군사들이 더 강한가?(兵衆孰強). 여섯째, 어느 편 병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士卒孰練). 일곱째, 어느 편이 상벌이 분명한가?(賞罰孰明)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자국과 상대국의 전투력을 상호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이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장수(지휘관)가 유능하고 양 및 질적으로 우수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체계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춘 군대라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군주(통치자)가 바른 정치로써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그런 가운데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올바르다면 국제적 동조도 가능할 것이다. 전쟁개시의 정당성 및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전투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전쟁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쌍방의 힘이 서로 맞부딪쳐 승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 전쟁의 본질적 속성임을 이해한다면 전쟁은 신중히 생각하고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파악함으로써 미리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린 다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손자가 제시한 '5사 7계'의 요소들은 전투력 평가 및 전쟁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손색이 없으며 현대전은 물론 장차전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4. 걸프전쟁의 승리 요인 분석

(1) 정치적 요인 : 지도자의 역량(道)

전쟁을 정치(정책)의 계속 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클라우제비츠적 관점이 아니라도 전쟁과 정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전쟁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정치 지도자의 개입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을 결심하고, 이후에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이 전

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손자병법의 ‘5사’중 도(道) 즉 바른 정치 또는 정치적 통합력을 제일 먼저 열거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손자에서는 윗사람(군주 또는 통치자)이 아랫사람(백성 또는 국민)과 뜻을 함께 하면 서로 생사를 함께 하게 되어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 최고 통치자의 국내·외적 지지도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보다 신뢰도 및 지지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¹⁴⁾ 부시 대통령은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 군사행동을 단행하기에 앞서 국민들을 전시체제로 동원했다. 이 때 미국 국민은 놀라운 단결력과 의지를 보였으며, 부시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을 이끌어 냈고, 군대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은 물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들은 군대로 하여금 전쟁의 세부 작전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선의 판정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강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그런 노력의 결실과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세계지도자들과 쌓아온 긴밀한 유대관계는 다국적군의 정치적 단결을 형성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써 유엔과 다국적군의 군사적 공동노력에 의해서 채택된 정치적, 경제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¹⁵⁾

한편 사담 후세인은 부시 대통령이 전쟁수행에 필요한 강력한 지도력을

14) 전쟁이 끝났을 때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전례 없이 90%로 나타났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Joseph P. Englehardt, 앞의 책, p. 71.

15)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p. 12~16.

겸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희생이 커지면 미국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반전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치적 결의가 허물어지게 되리라는 오관을 하였다. 또한 후세인은 이번 전쟁을 민족적 감정을 토대로 한 반미·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슬람(무슬림)의 지하드(聖戰)로 확대할 경우 다국적군의 분열과 그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이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되었다”고 발표한 것과 “이번의 군사행동은 서방측의 기독교 세계와, 거기에 오염된 아랍 배신자에 대한 지하드이며, 이라크는 이 전쟁을 감행하라고 선택받은 국가이다”라고 주장했던 것 등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후세인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와 같이, 미국과 대결시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라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사회가 ‘후세인 응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사담 후세인은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고, 시종일관 다국적군의 신념과 군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담 후세인은 군내 응집력 및 전쟁수행 의지가 전무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고 자국 병사들의 충성심을 맹신하였다. 지상전 발발 이후 TV에 비친 이라크군의 모습은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오합지졸로 투영되었다.¹⁶⁾ 아무리 막강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오관과 무리한 전쟁수행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 및 합심협력, 나아가 국제적 동의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 바로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 못지 않게 전쟁개시의 정당성 및 명분 확보 또한 필요하다. 극단적 평화주의자

16) 서울언론인클럽, 『세계특과원이 본 걸프전(상)』(서울: 서울언론인클럽, 1991), pp. 145~146.

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무차별적 전쟁옹호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전국도 자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입장이 정당한 것인지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다 정당한 것이 된다.

이 두 입장을 다 수용한 제3의 주장이 이른바 정전론(正戰論, bellum justum)으로,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전쟁도 있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전쟁도 있다”는 견해이다. 오늘날 UN체제하에서는 정전론에 입각하여 전쟁에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전쟁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명분 없는, 또는 잘못된 명분의 전쟁은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국민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하였고, 구 소련 또한 아프간을 침공할 당시 국제적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명분으로 ‘대동아공영권’을 외쳤지만 아시아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걸프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하여 당시 아랍국가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같은 아랍국가를 침공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으며, 아랍민족주의의 내부적 연대성에 익숙해 온 서방 세계 역시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에 대하여 설마하는 태도였다. 따라서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은 그 명분이나 국제적 역학관계는 물론 전략적 계산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이라크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타격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라크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러시아가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묵인 내지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다국적군은 전력 면에서 압도적 우세와 함께 침략국의 응징이라는 대의명분과 전쟁개시의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미국은 다국적군의 편성이 가능했고, 여기에서 냉전체제 이후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래

서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이라크의 지역적 패권의 저지 및 거부 등 실리(實利)가 합치되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 편에 가세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쿠웨이트를 무력 침공한 이라크를 주적(主敵)으로 간주한 이슬람국가들은 군사기지 제공에서부터 다국적군 파병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였던 연합보다 더욱 강력한 연합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로써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다국적군은 상대보다 월등히 우세한 힘을 갖게 되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의 명분은 손자병법의 '5사'중 도(道)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 즉 국민(또는 병사)들이 윗사람(군주 또는 통치자)과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도의 핵심원리는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 바로서야 국제적 지지는 물론 국민의 합심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군사적 요인 : 지휘관(將) · 편성 및 조직체계(法)

전쟁은 양자(兩者)간의 대결이므로, 강한 자가 승리하기 마련이다. 실제 전투가 전개되는 전장에서 승패는 전투력의 강약에 의해 판가름나게 된다. 즉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이 전쟁의 본질이고 실상인 것이다.

강한 군대 또는 전투력이 강한 군대란 어떤 군대를 말하는가? 전투력은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구성된다. 유형전투력이란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을 말하며, 무형전투력이란 통솔력, 군기, 사기, 전투기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수적 우세는 물론 적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기량을 발휘할 태세와 능력을 겸비한 질적으로도 우수한 이른바 정예군대일 것이다. 손자의 '7계'중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 가?(將熟有能)', '어느 편 군사들

이 더 강한가?(兵衆孰強), ‘어느 편 병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士卒孰練)’의 요소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 미군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미군내의 노련한 지휘관에게서부터 고도로 준비되고 잘 훈련된 용감하고 규율이 있는 남녀군인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군사력은 비범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원병의 98%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며,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자 노련미 뿐만 아니라 용기와 봉사정신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걸프전에 참가한 부대들은 미국이 일찍이 전투배치했던 부대 중 가장 우수한 전투부대였다는 평가다.¹⁷⁾

양국간의 군사력을 정보화군과 산업화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에르미아(D. E. Jeremiah) 전 미 합참의장에 의하면, “정보화군과 산업화군간의 격차는 한편은 눈을 뜬 반면에 다른 한편은 눈을 감고 장기를 두거나, 또한 한편은 한번에 몇 수씩 두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한번에 오직 한 수만을 두는 것과 같다”면서 “이들 군 간의 전력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미 국방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페리(W. Perry)도 다국적군의 군사력이 적어도 1,000배는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⁸⁾

실제 다국적군은 전쟁 첫날에만 전투기 2백~3백 여대를 출격시켜 ‘사막의 폭풍작전’ 제 1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물들인 이라크의 전략방공체제와 비행장, 화생방 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해군 및 항만시설, 정유시설, 철도 및 교량, 병력 및 군수품 저장소 등을 파괴하고,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한 이라크 군부와 정부의 통신시설·지휘통제실·보안정보기관 등에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였다. 동시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1백~2백발을 발사하여 이라크군의 지휘시설과 방공레이더, 육군 주요부대 등 50~60

17) 미군의 우수성에 관하여는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p. 21~23.

18) William J. Perry, “Desert Storm and Deterrence”, *Foreign Affairs* 70, no.4 (1991), pp. 66~82.

여 곳을 집중 공격하였다. 특히 이날밤, 스텔스 폭격기들은 성공적으로 이라크방공망의 지휘·통제 센터를 타격했다. 이것은 연합군의 공중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대응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국 다국적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초기 공격으로 적의 군사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국적군은 다음 작전을 안전하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결프전쟁은 다국적군의 공습 3일만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그 후는 강도 높은 훈련에 불과하였다”는 평가가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다국적군은 통신위성, 조기경보위성, 각종 정찰위성, 항법위성 등 많은 인공위성에서 전송한 군사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이라크군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반해 이라크군은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국적군의 기습적인 공습이나 기동작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¹⁹⁾ 즉 한편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웠고 다른 편은 주야 구분 없이 눈을 뜬 상태에서 적을 알고 싸운 격이었다. 손자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역설한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대적 군대를 상징하는 다국적군과 19세기적인 이라크 군간의 극히 거대한 군사력의 격차는 다국적군으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프전쟁은 ‘무기체계가 전술교리를 초월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첨단 정밀무기체계가 군사력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킨 대표적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무기체계가 열세하더라도 승리한 전쟁이 있고, 총체적 전력이 열세한 경우라도 적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하여 전쟁을 유리한

19) 그 증거로는 “이라크군에 대한 다국적군의 엄청난 군사적 승리의 상당부분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국가 및 친구 차원에서 결정권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미 국방부의 평가가 있다.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부록, p.52.

국면으로 전개한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만큼 전쟁의 승패를 속단하거나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전장환경의 불확실성과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형, 기상 등 자연조건으로부터 적의 상태, 즉 위치, 규모, 무기 및 장비, 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군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한 정보에 의거하여 확실한 상황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투상황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비록 전장의 실제적 환경이 자주장병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부여하더라도 장병들은 그러한 환경과 적에 대하여 인내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강한 군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세계의 어느 지역이라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의 전장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지휘관(장수)에게 있다. 부하들(병사)을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이들을 잘 다스리는 뛰어난 용병술을 구사하는 역할은 바로 장수의 몫이다. 역사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전장에서의 주역을 언제나 지휘관에 초점을 맞추어왔음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손자병법에 보면 “무릇 장수는 국가의 간성(干城)이다. 그의 능력이 주도면밀하면 국가가 강대해지고, 능력이 불안전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약해진다(夫將者 國之輔也 輔周則國必強 輔隙則國必弱)”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수는 전쟁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이 서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전쟁을 해야하고 승산이 없으면 군주가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말아야한다. 장수는 공명심과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본분을 다해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공명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故 戰道必勝, 主曰無戰, 必戰可也. 戰道不勝, 主曰必戰, 無戰可也. 故進不求名, 退不避罪, 惟民是保, 而利於主, 國之寶也)”라고 하였다. 지휘관의 중요성과 그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는 말이며, ‘7계’중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가? 가 뜻하는 바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장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던 나폴레옹 이전의 전쟁이나 전장이 확대된 현대전쟁에서나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각종 상황변화에 따라 작전수행과 각종 수단의 적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사고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고, 적을 기만하여 조종하며 항상 새로운 전술로 적과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지성과 용기를 두루 갖춘 지휘관 또는 장수가 필요한 것이다.

결프전쟁에서도 미 합참의장 파웰(C. Powell) 대장, 미 중부군사령관 겸 다국적군 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을 포함한 많은 장수들이 다국적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는 “파웰 대장의 전략적 통찰력과 탁월한 지도력은 미국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우리 군이 재치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었다. 그는 필요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이용하였다”라고 평하였으며,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다양한 부대가 밀접한 협조와 통합을 통해 응집력 있는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슈워츠코프 대장의 공로이다”라고 했다.²⁰⁾

파웰 합참의장, 슈워츠코프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의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 월남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들이며, 당시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뇌했던 고급 인력들이다. 특히 다국적군을 직접 지휘했던 슈워츠코프 대장은 월남전에서 습득한 실전 경험, 고대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확고한 전쟁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결프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슈워츠코프가 “후세인은 위대한 전략가도 전술가도 아니며 더더욱 장수감은 못된다”라고 평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라크군에는 능력있고

20)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p. 25-26.

현명한 장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의 군대는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으며, 후세인의 철저한 독재정치와 이슬람 원리주의 그리고 민주정치 구현에 대한 욕구 등으로 혼란된 아랍의 현시류 속에서 강한 일체감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휘관이 군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7계’ 중 ‘어느 편이 법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法令執行)’, ‘어느 편이 상벌이 분명한가?(賞罰孰明)’에 해당한다.

걸프전쟁에서는 골드워터-니콜스(B. Goldwater-B. Nichols)의 국방부 개편법령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거쳐 중부사령관이자 전장지역의 사령관인 슈워츠코프 장군까지의 지휘체통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었다.²¹⁾ 이에 따라 슈워츠코프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으로서 3군의 사령관이었고, 공군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9공군사령관이었으며, 해병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1해병원정군 사령관이었고, 해양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7함대의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즉 슈워츠코프는 쿠웨이트 전장지역의 모든 미군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국적군은 연합군이나 동맹군의 형태가 아니며, 통일된 지휘체계도 갖추지 않았고 종교나 민족 면에서 일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걸프전쟁에서는 한국전쟁시의 유엔군사령부와 같은 단일 지휘체계도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미 중부군사령부와 아랍 합동군 작전전구사령부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이는 강한 민족적 자존을 가진 아랍국가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유한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워츠코프 미 중부군사령관은 아랍 합동군 작전전구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의 술탄 장군과 ‘연합 협조, 통신 및 통합본부(C³IC: Coalit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 Integration

21)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의 국방성 조직개정 법안은 베트남전쟁시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야전통합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1986년 골드워터 의원과 니콜스 의원에 의하여 제기된 법안이다.

Center)라는 협조기구를 설치, 정보유통향상, 지원 및 이동통제와 작전계획 수립 협조 등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편제, 장비, 전술, 전기, 언어 및 문화가 각기 다른 다국적군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통합함으로써 다국적군을 단결시키고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그 결과 이들은 동일한 목적 아래서 싸웠으며, 모두 미국 중부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5사'의 '법(法)' 즉 지휘의 원활함과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및 법적 장치가 원만하게 작동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걸프 전쟁은 최첨단의 전쟁에서도 우수한 지휘관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군사력의 산술적 비교가 아닌 전투장비의 성능 및 파괴 살상력, 목표 명중률, 무기체계 및 운용 능력, 인력의 자질 등 모든 군사력 평가 요소에서 이라크군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무기체계는 물론 손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휘관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편성과 훈련 그리고 법령(군기)과 상벌(사기) 즉 '5사'의 '장(將)' 및 '법(法)'적 요인과 '7계'의 '장숙유능(將熟有能)', '병중숙강(兵衆熟強)', '사졸숙련(士卒熟練)', '법령숙행(法令執行)' 그리고 '상벌숙명(賞罰孰明)' 등 군사적 요인에서 우위에 있는 군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3) 시간·공간적 요인 : 기상(天)·지형(地)

전쟁은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극도의 정신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며 불확실성과 우연이 지배하는 곳이다. 전장에서는 확실한 정보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첩보도 얻기 어려우며, 변화하는 상황도 신속하게 파악하기

22)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p. 487~489.

곤란한 것이다. 또한 보급의 차단 및 전투지원의 제한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된다.

전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 중 또 다른 요소는 불리한 자연조건이다. 전투는 주로 지형이 험악하고 기후조건이 나쁜 야전에서 이루어진다. 전투에 임하는 쌍방은 천연적인 지형이나 기후조건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전투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장의 장병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지형과 기후조건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의 의도로 인한 아군 활동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도 익숙하지도 못한 생소한 분위기는 병사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지도가 커다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평면의 지도로써 입체적인 지형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형을 숙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기복이 감추고 있는 인원 및 물자의 배치, 이동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상조건 또한 장병들의 임무수행, 최적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장비의 성능 및 지상과 공중에서 기동하는 부대들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극도로 추운 지역에서의 기후조건은 피아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휘관은 어떤 특정지역에서의 기상이 작전지역 내에서의 광범위한 기상상태들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차 작전과 적에 미치는 기상상태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형과 기후의 악조건은 자연히 장병들에게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을 주고, 무기와 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 행동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훌륭한 지휘관은 지형에 대한 안목이 있고, 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패배를 모르던 나폴레옹이 1812년, 45만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지만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겨우 1만명 정도로 감소된 병력과 함

게 후퇴해야만 했던 전사의 기록은 전쟁에서 자연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명장과 우수한 지휘관들이 지형과 기상을 잘 활용하여 전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세한 적을 물리친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지형과 기후조건은 때로는 전쟁의 승패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 역시 지형의 특징에 상응한 전투 배치와 작전구상을 제시하면서, “군이 기동하여 적과 대치할 때, 산악을 횡단하여 계곡을 의지해 진영(陣營)을 편성하는 경우, 유리한 곳을 살펴서 가능하면 높은 곳에 머무른다. 고지를 장악한 적을 상대해야 할 때는 산을 거슬러 올라가며 싸워서 안 된다. 하천을 도하한 후에는 반드시 물에서 멀어져야 한다. 적이 도하해 올 때는 물 속에서 적을 맞아서는 안 되고 적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이를 공격하면 이롭다. 적을 맞아 전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하천에 근접하여 적을 맞지 말고 높은 지역의 이점을 살펴 상류 쪽을 향하면서 적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호수가 많은 늪지대를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전력으로 행군하여 그 지역을 벗어날 것이며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수풀이 많은 늪지에서 적과 조우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배후에 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있는 곳을 등지도록 해야 한다. 평탄한 지역에서는 군이 움직이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서쪽은 높은 지형을 등지고 전면에는 적의 공격이 불리한 지점을, 배후에는 높은 지형을 두도록 군을 배치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지형-산악지역, 하천지역, 늪지대, 그리고 평탄한 지역-의 이점을 사용하는 용병술이 옛날 황제가 사방의 적들과 싸워 승리한 까닭이다”라고 했다.²³⁾

결프전에서도 다국적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사막이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다소 도전을 받았지만 오히려 적

23) 손자병법 행군편(行軍篇),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戰爭理論研究部, 『孫子兵法新注』(北京:中華書局, 1977), p. 84.

부대들이 대부분 기갑이나 공군력 사용에 이상적으로 알맞은 지역에 포진해 있었고 비전투원들과는 멀리 유리(遊離)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점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즉 사막의 지형과 기상은 공군력 사용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다국적군이 적의 표적이 되기 전에 기갑부대로 하여금 장거리에서 적군과 교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 병사들은 중동의 사막이 전혀 낯선 환경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 모하브 사막에 있는 육군 국립훈련소(NTC)에서 실전보다 더 혹독한 사막훈련을 받았고, 1982년부터 이 훈련 센터를 거쳐간 장병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미 육군의 모든 현역 기갑, 기계화부대는 2년에 한 번 2주간 이 곳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사막의 폭풍작전이 전개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은 이라크군의 지뢰지대를 돌파하는 훈련, 화학무기에 대처하는 훈련 등을 반복했다.²⁵⁾

한편 후세인은 전쟁장소와 시기선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였다. 실제 이라크는 미국이 완전한 공격태세를 갖추기까지 6개월이나 소극적 방어로 일관했고, 미국은 그 동안 훌륭한 항구와 공군기지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 시기적으로도 냉전의 기간 동안 건설해 놓았던 군사력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순간에 이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부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크게 감소한 덕분에 미 제7군단을 독일로부터 걸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다.²⁶⁾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러시아가 '반 후세인 연대'를 형성한 시점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과 이라크 일국간의 전쟁은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장차 전쟁이 있을 경우,

24)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 9와 p. 20.

25) 미군의 훈련에 관한 내용은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부록, pp. 67~76.

26)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역, 앞의 책, p. 9.

걸프전쟁과 같은 여건과 행운은 다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게 된다. 실제 걸프전 이후 유고사태 및 코소보전쟁, 그리고 최근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등은 걸프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시(天時)도 다국적군 편에 유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손자의 ‘5사’ 중 ‘천(天) 및 지(地)’와 ‘7계’의 ‘천지숙득(天地熟得)’ 요소들을 잘 활용한 군대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형과 기상은 전장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승패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정보화, 과학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형 및 기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형정보 수집, 상세한 지형정보를 순항미사일 같은 정밀유도 무기에 입력 목표 타격, ‘위치과약체계(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아군 부대의 이동을 실시간 통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지적인 기상예보에 활용, 수집한 지형 및 기상정보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전장정보분석에 활용하는 등, 지형 및 기상을 다루는 방법도 점차 체계화되고 과학화되어 날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5. 결 론

걸프전쟁은 20세기 마지막 전쟁으로서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의 변화, 발전의 측면에서 현대전 및 미래전 수행을 위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전쟁에서 다국적군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로 평가될 정도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군사력의 산술적 비교가 아닌 전투장비의 성능 및 파

과 살상력, 목표 명중률, 무기체계 및 운용 능력, 인력의 자질 등에서 이라크군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5사 7계’의 모든 요소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다국적군이 이라크군보다 ‘유능한 장수’, ‘막강한 군대’, ‘훈련이 잘 된 병사들’, ‘법령을 잘 준수하는 군대’, ‘상벌이 공명정대하게 실행되는 군대’ 그리고 ‘천시와 지리가 유리한 군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지휘관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편성과 훈련 그리고 법령(군기)과 상벌(사기)등 군사적 요인에서 우위에 있는 군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세 못지 않게 전쟁의 명분이나 정당성 확보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 또한 손자병법의 ‘5사 7계’ 중 ‘도(道) 즉 명분과 ‘바른 정치’에 해당한다. 다국적군은 불법적인 침략을 응징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는 물론 오랜 동안 적대국이었던 러시아, 이슬람권의 많은 국가들을 반 이라크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국민·정부·군대가 일치된 힘을 발휘할 때 승리한다는 이른바 ‘삼위일체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 바로서야 국민의 지지는 물론 국제적 공감대 및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다 시기적으로도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이라크에게 불리했고 지리적 여건 또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았다. 즉 걸프전쟁에서 ‘5사 7계’ 중 ‘천시와 지리’도 다국적군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군사적요소 뿐 아니라 정치적·지정학적요소에서도 다국적군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전쟁의 명분 외에도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발휘할 때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외적 지지를 획득하고, 군사력 증대를 위한 정치적 결단 등에 힘입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반면, 후세인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시종일관 방어에만 일관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 상실은 물론, 일방적으로 다국적군에게 당하기만 하는 꼴이 되어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는 곧 손자가 제시하고 있는 ‘5사 7계’의 모든 요소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걸프전쟁 역시 손자의 병법원리가 그대로 실현된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걸프전쟁은 현대전을 상징하는 ‘최첨단 과학전쟁’임과 동시에 ‘고전적 병법원리의 실험장’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은 ‘전자오락 게임’이나 ‘불꽃놀이’가 아니며 정치적 모험이나 도박도 아니다. 국가의 존망과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시험해 보거나 예행연습도 할 수 없으며, 지도자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오만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도 안 된다. 걸프전쟁은 국가 지도자의 과대망상과 이로 인한 오관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국적군의 승리 요인은 물론 이라크군의 실패요인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손자의 ‘5사 7계’의 의미와 그 유용성은 물론 전쟁의 본질적 속성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K C I